

# 광주 서구청 강영미 맹활약...여자 에페 단체전 '도쿄행'

### 카잔 월드컵 단체전 준우승...강영미 개인전 동메달 이어 은메달 획득 남자 에페도 올림픽행...한국, 단체전 4종목 등 역대 최대 출전권 확보

한국 펜싱 여자 에페 대표팀이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해 첫 국제대회에서 단체전 준우승을 일궈내며 올림픽 단체전 출전권을 확보했다.

강영미(광주시 서구청), 최인정(계룡시청), 송세라(부산시청), 이혜인(강원도청)으로 구성된 여자 에페 대표팀은 23일(현지시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단체전에서 폴란드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3월 이후 중단됐다 재개된 첫 국제대회에서 여자 에페 대표팀은 개인전에서 최인정이 금메달, 강영미가 동메달을 목에 건 데 이어 단체전에서도 결승에 오르는 선전을 펼쳤다.

8강에서 이탈리아를 36-31, 준결승에서 중국을

33-29로 꺾고 결승에 오른 한국은 결승에선 폴란드에 24-45로 패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박상영(울산시청), 권영준(익산시청), 송재호(화성시청), 마세건(부산시청)이 출전한 남자 에페 대표팀은 단체전 8강에서 이탈리아에 40-44로 져 6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번 대회 결과로 남녀 에페 대표팀은 나란히 도쿄 올림픽 단체전 출전권을 확정했다.

올림픽 펜싱은 남녀 사브르-에페-플뢰레 등 종목별로 8개국만 나설 수 있는 단체전이 출전권 배분의 관건이다. 단체전 출전권을 따낸 해당 종목엔 국가당 3명이 자동으로 개인전에 나설 수 있다.

단체전 출전권은 4월 5일 기준 종목별 팀 세계

랭킹 1~4위에 우선 주어지고, 남은 네 장은 5~16위 내에서 4개 권역별로 순위를 따져 가장 높은 팀을 추려 주권을 가린다. 단체전에 나서지 못하면 권역별로 남은 2~3장의 개인전 티켓을 두고 개인 세계랭킹을 따지거나 지역 예선 대회를 치러야 한다.

한국은 앞서 남자 사브르가 팀 세계랭킹 1위, 여자 사브르가 4위로 단체전 출전을 확정했고, 여자 에페는 이번 월드컵 결과로 세계랭킹 4위로 도약하며 단체전 출전권을 확보했다. 남자 에페는 세계랭킹 5위로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최상위를 굳혀 도쿄행을 결정지었다.

남녀 플뢰레는 단체전 출전권 획득은 불발됐으나 개인전에는 세계랭킹에 따라 출전을 확정했다.

대한펜싱협회는 "올림픽 단체전 4종목 출전은 사상 처음이며, 이를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강영미(왼쪽)가 23일(현지시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단체전에서 폴란드의 알렉산드라 자레카를 몰아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 근대5종 국제대회 재개... '에이스' 광주시청 전용태 4월 출격



전용태

도쿄에서 사상 첫 올림픽 메달 획득을 기대하는 한국 근대5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멈춰 섰다가 다시 시작하는 국제무대에 나선다.

이번 시즌 근대5종 국제대회는 24일부터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국제근대5종연맹(UIPM) 월드컵으로 막을 올린다.

지난해 2월 말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월드컵 1차 대회 이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각종 대회가 중단된 뒤 1년여 만의 재개다.

부다페스트 월드컵에 이어 다음 달 7일부터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두 차례 월드컵이 열리고, 5월 월드컵 파이널과 6월 세계선수권대회를 거쳐 올림픽으로 이어진다. 올림픽 출전권을 이미 따낸 선수들에게 세계랭킹을 끌어 올리고 실전 감각을 쌓을 기회이자, 아직 도쿄행 티켓을 획득하지 못한 선수들에게 막자를 노릴 무대다.

2019년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 동메달로 한국 선수 중 가장 먼저 도쿄행 티켓을 거머쥔 '에이스' 전용태(26·광주시청)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부다페스트는 건너뛰고 소피아 대회부터 나설 계획이다.

문경의 국군체육부대에서 동료들과 훈련에 매

진해 온 전용태는 "부대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운동에 집중할 수 있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 몰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전용태는 지난해 2월 카이로 월드컵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패조의 컨디션을 뽐내던 중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대회가 중단되고 올림픽도 연기되며 흐름을 잊지 못했다. 이후 국내대회도 거의 열리지 못해 답답할만 거듭했다.

그는 "훈련을 계속해온 만큼 컨디션은 좋은데, 실전에서 시험해 볼 기회가 없었던 터라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가 궁금했다"면서 "올림픽이 반드시 열린다고 하니 재개되는 국제대회에서 기량을 점검하고, 담벼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이번 월드컵에선 메달에 집착하기보다는 올림픽에서 제가 해야 할 것들을 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면서 "체력 종목에서는 기록이 잘 나오도록, 변수가 많은 펜싱과 승마에서는 디테일에 신경 쓰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올림픽 근대5종엔 남녀 개인전에 국가당 2명씩만 출전할 수 있다. 각종 국제대회 대회 성과로 3명 이상의 선수가 출전권을 딴 경우 세계랭킹으로 2명을 가린다. /연합뉴스

## 올해 부활 날개 편 전인지 "다시 한번 올림픽 도전하고 싶다"



전인지

올해 치른 세 차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에서 모두 톱10에 이름을 올리며 부활의 날개를 편 전인지(27)가 도쿄 올림픽 출전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LPGA투어 기아 클래식 개막을 하루 앞둔 24일(한국시간) 전인지는 공식 인터뷰에서 "2016년 올림픽 참가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라면서 "영광이기도 했지만, 부담감도 굉장했다"고 운을 뗐다.

"부담감 때문에 내 경기를 다 펼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토로한 전인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올림픽에 도전하고 싶다"고 의욕을 밝혔다.

전인지는 "한국은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올림픽 출전이) 쉽지 않다"고 전제한 뒤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면서 한 대회 한 대회 조금 더 집중해서 나에게 기회가 올 수 있게끔 최선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올림픽 출전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전인지는 박인비(33), 양희영(32), 김세영(28) 등과 함께 2016년 리우 올림픽에 한국 대표로 출전한 바 있다. 당시 전인지는 공동13위에 올랐다.

세계랭킹 50위인 전인지는 한국 선수 가운데 18위에 해당한다. 도쿄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6월에는 세계랭킹 15위 이내에 진입하고 한국 선수 가운데 4위 이내에 들어야 한다.

현재 세계랭킹 15위 이내에는 한국 선수 5명이 포진했다.

전인지의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메이저대회 3차례를 포함해 13차례 대회가 남아 있어 전혀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작년까지 부진에 허덕이다 올해 들어 경기력이 살아난 전인지는 "전성기 때처럼 못하는 나 자신이 한심해지고 속상했고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우울감도 생겼다"고 털어놓고 "지금 내게 필요한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경기력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자평했다.

"일단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느낌에 기쁘기도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는 전인지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계속 걸어 나가면서 성적도 끌어올리고 싶다"고 덧붙혔다. /연합뉴스

## '군인의 힘' 이지현

### 프로바둑 박정환 꺾고 맥심배 결승행...김지석과 격돌

해군 복무 중인 프로바둑기사 이지현 9단이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2연 연속 우승에 마지막 관문만 남겨뒀다.

24일 한국기원에 따르면, 입신(入神·9단의 별칭)에 오른 바둑기사 중 최강자를 맥심배 결승 3번기는 이지현과 김지석 9단의 대결로 열린다.

국내 바둑 랭킹 10위 이지현은 23일 서울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맥심배 4강전에서 랭킹 2위 박정환 9단과 335수까지 가는 혈투 끝에 백 2집 반을 남기며 승리, 결승 진출권을 따냈다.

지난해 4월 맥심배 우승을 끝으로 해군에 입대한 '상병' 이지현은 코로나19 여파로 외출이 어려워 부대 내 특설 대국실에서 온라인 대국으로 대회에 임하고 있다. 전역은 내년 2월 예정이다.

이지현은 대국 후 인터뷰에서 "바둑 공부는 전보다 못하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했다"며 "난적을 꺾은 만큼 결승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대회 2연패 도전 각오를 밝혔다.

랭킹 6위 김지석은 지난 22일 4강전에서 랭킹 26위 백홍석 9단을 171수 만에 백 불계승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2014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맥심배에 출전



제22회 맥심커피배 결승에서 맞붙는 이지현 9단(왼쪽)과 김지석 9단.

해운 김지석은 처음으로 결승전에 진출했다. 결승 3번기 1국은 29일 오후 7시 시작한다.

상대 전적에서 이지현은 김지석에게 4승 3패로 앞선다. 최근 대국인 2019-20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맞대결에서도 이지현이 승리했다.

동서식품이 후원하고 한국기원이 주최하는 맥심배 우승 상금은 5000만원, 준우승 상금은 2000만원이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고질라 VS. 콩
2관	고질라 VS. 콩
3관	리아와 마지막 드래곤, 더 박스, 모리타니안
4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5관	미나리, 리스트
6관	고질라 VS. 콩
9관	와일드 마운틴 타임, 미션 파서블
7관	씨네커피廳, 최면, 트윈디 해커, 더 박스
8관	씨네커피廳, 미나리, 스파이의 아내, 와일드 마운틴 타임, 톱과 제리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국악 상설 공연**

일시 : 2021. 02. 24.(수) ~ 03. 31.(수)

매주 화-토 17:00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GAC기획공연 포커스**

**아카펠라 그룹 EXIT (One Voice)**

일시 : 2021. 04. 11.(일) 15: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